

송정역 종점 KTX, 광주역 경유 방안 추진

시민 절반 이상 거주 동·북구 주민 교통 불편 해소 시, 국토부에 건의... 연장 진입시 12km 37분 소요

광주시가 올 연말 호남고속철도(KTX·광주 송정~서울) 완전 개통에 따라 송정역이 종점인 KTX에 한해 광주역까지 연장 진입(후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동·북구 주민의 교통 불편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0일 간부회의에서 "KTX 광주역 진입여부 및 진입방식이 결정되는 올 하반기(9~10

월) 이전에 국토부와 논의해 광주역 연장 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광주역으로 연장 진입(후진)했던 KTX는 광주역을 출발역으로 승객을 싣고 송정역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는 서울에서 송정역으로 오는 KTX 중 목포방면 KTX는 광주역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목포로 운행하며, 송정역이 종착인 KTX에 한해 일부 광주역까지 진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KTX 광주역 진입 논란과 관련해 ▲하남역 분기 후 신설(新線)을 통한 광주역 진입 ▲정읍역 분기 후 기존 호남선을 통한 광주역 진입 ▲송정역까지 운행 후 광주역으로 반박(후진) 운전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일반 셔틀 열차 운행 등 4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타당성 조사결과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다만, 송정역까지 운행한 뒤 광주역으로 후진해서 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광주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 같은 타당성 조사서 내용을 근거로 국토부에 광주역 연장 진입을 강력 건의하고 있다.

국토부도 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KTX를 송정역까지 운행한 뒤 광주역으로 진입시키는 것과 관련해 송정역 구내에서 건널선(하행선에서 상행선으로 바꾸는 선)이용시 상·하행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KTX 후진시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12km) 운행시간 17분, 역방향 차량의 엔진가동 준비시간으로 20분이 들어가는 등 총 37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37분이면

시민들이 송정역에서 내려 차량 등을 이용해 광주역 인근으로 가는 것보다 편의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차영규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경제성 여부를 떠나 광주시민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광주역 인근 거주민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송정역에서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하루 평균 광주에 정착하는 KTX는 22대(왕복)이며, 송정역은 18대다. 올 연말 호남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되면 하루 48대의 KTX가 송정역에 정착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교황 프란치스코 8월14일 방한

4박5일 일정- 박대통령 면담·애포년대회 참석 전라도 24명 포함 순교자 123위 시복식 집전

교황받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빛으로 불리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순교자의 땅' 한국에 온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천주교 총장으로 오는 8월14일 방한한다고 청와대와 천주교 주교회의가 10일 공식 발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14일부터 18일까지 방한해 박 대통령 및 대전교구에서 주최하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는 13~17일 대전·충남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15개국 이상의 아시아 국가 가톨릭 신자들이 참석한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번 여행에서 다른 나라는 들르지 않는다. 오로지 한국만을 위한 일정이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일어나 비추어라'를 주제로 한 이번 방한에서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해 아시아 젊은이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조선왕조 때 박해로 순교한 순교자 123위의 시복식을 집전한다. 지역별 순교자는 전주에서 순교한 윤지충 등 전라도 24명, 서울 37명, 경상도 29명, 충청도 18명, 경기

도 13명, 강원도 3명 등이다. 시복식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것이 유력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

또 충북 음성군의 장애인·행려인 공동체인 꽃넌네도 방문해 장애인들도 만나며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의 화해를 염원하는 미사 집전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로, 요한 바오로 2세가 1989년 방한한 지 25년 만이다.

천주교 주교회의의 의장 강우일 주교는 "교황 방한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큰 희망과 기쁨이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회귀량 0.4%... 섬진강 연어 계속 방류해야 하나?

섬진강에 방류된 연어 치어가 태평양, 대서양 등을 돌아 성어가 돼 섬진강으로 돌아올 확률은 고작 0.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8년부터 15년간 무려 498만5000마리의 연어 치어가 바다로 나갔지만, 이 가운데 돌아온 연어는 1942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어의 회귀율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 지난해 섬진강물을 맛 본 연어는 162마리, 3년 전인 2010년 치어에 방류한 10만 마리 가

운데 1.62%가 회귀한 것으로, 처음으로 회귀율이 1%대를 넘어섰다.

이 같은 결과에 고무된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에만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5만 마리의 연어 치어를 방류할 예정이다. 지난해 14만 마리의 5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3년 뒤에는 1000마리에 가까운 연어가 섬진강을 거슬러 오르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강원도의 남대천과 전

남의 섬진강이 대표적인 연어 치어 방류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방류하는 연어는 연간 1200만~150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평균적인 회귀율은 0.3~0.7%에 불과하지만, '연어 회귀' 자체가 지역 생태계의 건강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연어 치어를 놓아주고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은 그동안 양성해온 연어 치

어 65만 마리 중 35만 마리를 지난해 21일 광양시 다압면 섬진나루터에 1차 방류했다. 이어 11일에는 구례군 간전면 섬진강어류생태관 앞 섬진강 수계 생태하천에서 2차로 30만 마리를 방류한다.

이들 연어 치어는 지난해 섬진강으로 올라온 어미 연어를 포획, 채란한 뒤 7만 개를 직접 부화시켜 약 3개월 동안 5cm 크기로 키우는 것이

다. 특히 방류량 증대를 위해 우리나라

동해 연안으로 회귀한 해면 연어를 확보, 직접 채란해 30만 개를 부화시켜 관리해왔으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와 협조해 연어 수정란 30만 개를 추가 확보하기도 했다.

방류된 어린 연어는 섬진강하구에서 1~2개월 정도 머문 뒤 남해와 동해를 거쳐 배림해와 북대평양으로 이동해 3~5년 동안 성장한 후 고향인 섬진강으로 모턴회귀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5년간 498만마리 방류 1942마리 돌아와 전남해양수산과학원, 65만마리 추가 방류

교황 한국 방문, 요한 바오로 2세가 유일

1984·1989년 두차례... 광주금남로·전남도청·소록도 찾아

교황 프란치스코 이전 265명의 역대 교황 가운데 한국을 찾은 교황은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방한한 요한 바오로 2세가 유일하다. 특히 그는 1984년 5·18 민중항쟁을 겪은 광주와 소록도를 찾아 상처를 위로하는 등 광주·전남과 인연이 깊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을 축하하는 등 서울과 광주, 대구, 부산을 돌며 세례성사의 구명운동을 통해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인 첫 방한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5월 3~7일이었다. 한국 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역대 교황 가운데 처음으로 방한했다.

당시 가까이에서 방한을 도왔던 전 출천교구장 장의 주교에 따르면 요한 바오로 2세는 광주 방문 때 행사장인 무등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5·18 상처가 배어 있는 전남도청과

금남로를 거쳐 갈 것, 한국 발전을 보여주는 곳 말고 소록도 나환자 병원에 갈 것을 고집했다고 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방한 기간에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한국 천주교의 순교자 103명을 성인으로 모시는 역사적인 시성식을 주례했다. 또 서울과 광주, 대구, 부산을 돌며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사제서품식을 주례하고 노동자와 농어민, 서민 등을 두루 만났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89년 10월 5~8일 짧은 일정으로 두 번째 방한했다.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를 위해서였다. 그는 2000년 3월 바티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권유하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 쪽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방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외국 면세점서 500만원이상 카드결제시 관세청 추적

외국의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분기당 500만원이 넘는 고가 명품 등을 사서 몰래 들여오면 추후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된다.

고액의 물품을 여러 차례로 나눠 결제해도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포탈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1만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사용내역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 5000달러(약 530만원) 이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에서 5000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객의 명단과 결제 내역이 4월 중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의 관세청 통보 방식 변경은 1년 단위의 결제정보가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단속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국내 면세점에서 고액을 결제한 여행자는 입국시 휴대품 검사 등을 통해 개인 면세한도(400달러) 초과 여부를 점검받지만 외국에서 면세점·백화점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단속이 어려워 행정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1분기 해외 신용카드 고액 결제 현황을 다음달 처음으로 통보받으면 고액 사치품을 결제하거나 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들을 선별해 관세 누락, 수입가격 저가 신고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FISU 감독위원들, U대회 경기장 현장점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감독위원들이 10일 오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핸드볼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전남대학교 체육관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31226-증-52297호

老安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j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